2021.04.19. NO.662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VinFast

베트남 최초의 자동차 브랜드이자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 빈그룹의 일원인 빈패스트는 2017년 하이퐁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창립되었다. BMW, 피닌파리나 등의 도움으로 2018년 파리 모터쇼에서 최초로 SUV와 세단 모델을 공개했으며, 2019년부터 실생산을 시작해 6월 최초로 사전 주문 고객에게 차량 전달을 개시했다. 2020년 1분기에는 베트남 내에 5,124대를 판매해 완성차 업체 5위로 올라섰고, 한 해 판매량은 3만여 대를 기록했다. 주력 모델은 경차인 파딜(FADIL)과 중형 세단 럭스 A2.0, SUV 럭스 SA2.0 등이며 이외에도 전기버스인 빈버스 등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패스트는 올해 초 전기차 3종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모터 트렌드인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것을 표명했으며 실생산과 고객인도는 202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KB증권베트남은 빈패스트의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5년 내에 세전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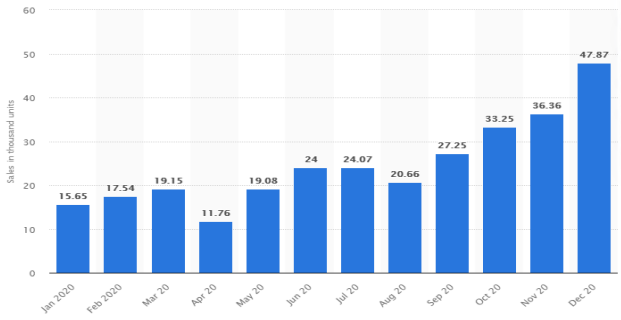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빈패스트 자율주행 GPU 공급자로 NVIDIA 선정

빈패스트가 자사의 자율주행 자동차 GPU 프로세서 공급자로 업계 최대업체인 NVIDIA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빈패스트는 SUV 전체 모델에서 2-3레벨 수준의 자율주행능력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을 전하며, NVIDIA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기로 했다. 빈패스트의 CEO인 THAI THI THANH HAI는 "글로벌 기술업체의 성과를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빈패스트의 전략"이라고 말하며 "빈패스트에 NVIDIA 드라이브를 탑재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빈패스트는 올해 2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주행을 위한 면허를 얻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돌입한 바 있다.

출처: VIET NAM NEWS (링크)

빈그룹, 빈패스트 미국 증시 상장 검토



2020년 베트남 차량 판매량 (단위: 1,000)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빈패스트가 미국 증시를 통한 기업공개(IPO) 방안을 자문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2분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빈패스트가 상장 후 최소 500억 USD의 기업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억~30억 USD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빈패스트가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하면 베트남 기업 가운데 최초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된다. 이에 베트남 증시의 기대감도 올라 13일 빈그룹의 주가는 5.3% 상승하여 신고가를 기록했다. 빈패스트 측은 이에 대하여 빈패스트의 자본조달을 위해 직접자본투자, 신주발행, M&A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굿모닝베트남(링크)

주요기사

1분기 베트남 휴대폰 생산량 5천 4백만 대

베트남 산업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베트남은 휴대폰을 전년 대비 2.7% 증가한 5,440만 대를 생산했고, 휴대폰 및 부속품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41억 USD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18.2%를 차지했다. 국내생산은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수출용 제품이었다. 이외에도 전자기기, 컴퓨터 및 광학제품 생산은 12.3% 증가했으나 국내 소비용 제품은 13.5% 감소했다. 특히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속품이 전년 대비 31.3% 증가한 119억 6천만 USD를 기록하여, 휴대폰 및 부속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출처: Vietnam Net(링크)

'백신여권' 인프라 구축 완료

정부는 유관 기관 및 통신사들이 백신 여권을 취급하기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각종 입국 허가 조건 및 접종 백신 종류, 입국자 정보 확인 기능이 포함된 이 인프라를 통해, 여권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접종 인증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입국 2주 전 접종을 모두 마쳐야 하며, 입국 후에는 일주일 간 격리시설에 머물며 2차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 후에도 추가로 일주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세계 각국과 백신여권 도입 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베트남-한국 상업통상부 정책 대화 개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지난 9일 "대한민국-베트남 물류 유통 산업 정책 대담"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 대담은 201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내수시장 국장인 Trần Duy Đông은 베트남의 물류 및 유통업이 최근 크게 성장했지만, 법규정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측은 한국의 정책, 법률,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베트남의 유관부서가 법규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현대화된 유통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규모 소매 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적인 소매업과 최신 소매업 사이의 조화를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 제품 스캔"(KPS) 시스템의 도입에 관하여도 논의했다. 베트남 소비자와 수입업자들이 한국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KPS는 품질 보증 및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동 국장은 KPS를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소비자 편의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담에는 양국의 경제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 명이 화상으로 참여하여 유통과 물류를 아우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공유했다.

출처: Viet Nam News (링크)

금융

빈그룹 시가총액 200억 달러 돌파

최근의 베트남 증시 강세를 타고,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의 시가총액이 베트남 기업사상 최초로 200억 USD를 돌파했다. 4월 14일 빈그룹(VIC)의 종가는 14만 VND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빈그룹의 시가총액은 205억 6천만 USD로 호치민 거래소 시가총액의 10%에 달했다. 한편 빈그룹의 뒤를 이어 비엣콤뱅크, Vinhomes (빈그룹 자회사), 비나밀크, PV Gas, 호아팟 등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점령했다.

출처: VietnamBiz(링크)

베트남 국영은행, 부동산 ·증권 과열 '경고'

베트남 국영은행이 부동산과 증권 부채의 리스크를 경고했다. 신용국장 Nguyen Tuan Anh은 3월 말 기준으로 모든 부문의 신용 성장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동산 금융, 회사채 투자 등은 평균보다 높은 확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금융은 올 1분기 전년 대비 3% 성장하여 185만 VND를 기록했다. 따라서 그는 신용기관이 대부시에 사업 계획의 효율성과 법적 절차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년 베트남 GDP 대비 신용잔액은 140%에 달해 신용시장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VietnamBiz(링크)

꽝빈 성

2021년	최저임금(₫)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전 지역 Region 4

명칭: Quảng Binh
성도: Đồng Hới
교통: 1A, 12A, 12C, 9B, 15A
고속국도, 호치민 고속국도/동허이 국제공항/남북선 동허이 역/혼라 항구
GRDP: 14억 4천만 USD
연평균성장률 12.01%
꽝빈 성은 남북으로 긴 베트남의 허리에 위치하며, 폭은 4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남북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는 반드시 꽝빈 성을 거친다. 2018년 기준 인구는 88만 명 수준으로, 과거 베트남 내 가장 낙후된 성이었지만, 혼라 경제구역 등에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 인민위원회는 발전소와 자동차조립공장, 방산업단지 개발 등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 있다.
출처: InsideVina(링크), 꽝빈 성 정부(링크)

혼라 항 공단(CẢNG BIỂN HÒN LA)

면적: 278 ha
입지: 1A 고속국도/혼라 항/동허이 공항 54km
전기: 110 / 22KV - 2x40MVA
비용
- 임대료: 5 USD/㎡
- 전기료: 국가 기준에 따름
- 물 사용료: 20,000 VND/㎥
- 폐수 처리: 12,500 VND/㎥
- 오물 처리: 500,000 VND/月

출처: Invest Vietnam(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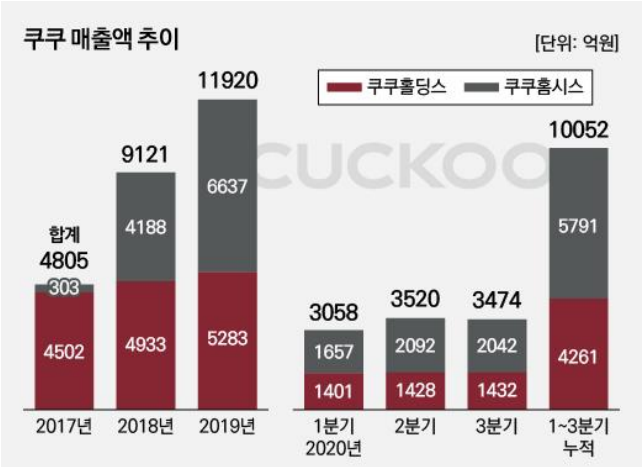
깜렌 공단(CAM LIEN)

면적: 450 ha
입지: 1A 고속국도/혼라 항/동허이 공항 41km/동허이 36km, 다낭 200km
전기: 110 / 22KV
비용
- 임대료: 4,500 VND/㎡
- 전기료: 국가 기준에 따름
- 물 사용료: 12,000 VND/㎥

혜택: 고정자산 및 투자이행을 위한 원료, 부속품 등은 수입관세 면제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10년간 17% 혜택 세율 적용 등
출처: Invest Vietnam(링크)

쿠쿠 (Cuckoo)

쿠쿠 베트남, 코로나에도 굳건한 실적



2020년 쿠쿠전자 베트남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01% 폭증했다. 쿠쿠 관계자는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들이 현지의 주목을 얻은 이른바 'K-가전' 효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판매법인 매출 역시 65% 증가하여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는 지난해 해외법인 전체 매출이 각각 3,101억 원, 595억 원을 기록했다. 올 한 해 쿠쿠 베트남 법인은 밥솥 라인업을 확대하고, 블렌더나 식기건조기 등 주방가전 품목을 다각화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쿠쿠는 지주회사 쿠쿠홀딩스 아래에 각종 주방가전 판매사인 쿠쿠전자와 렌탈 사업 전문업체인 쿠쿠홈시스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Bizwatch(링크)

쿠쿠의 새 먹거리 렌탈… 국내외에서 급성장

한국에서는 전기밥솥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쿠쿠는 정수기나 그릴 등 가전상품의 렌탈판매를 통해 전기밥솥보다 나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쿠쿠 산하 렌탈업체인 쿠쿠홈시스는 직원 방문 없이 소비자가 직접 관리하여 저렴하게 대여하는 자기관리형 제품의 비중을 늘려 신규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쿠쿠전자의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특히 가전제품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동남아의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다. 2015년 진출한 말레이시아 렌탈 시장에서 쿠쿠홈시스는 연평균 10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로 큰 수익을 올리며 자체 브랜드숍을 여는 등 브랜드 가치 상승과 자체 유통 및 판매망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처: Bizwatch(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한국 가정 및 부엌가전의 대표 기업인 쿠쿠는 2018 년 인도,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며 베트남 진출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기존에 이미 호치민과 하노이에 쿠쿠 브랜드숍을 설립해 베트남 소비자들을 만났던 쿠쿠는 베트남 법인 설립을 기념하며 베트남 전용 압력 밥솥 2 종을 출시하고, 이 제품군에 베트남어 설명서를 적용하며 현지 시장 개척에 나섰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고가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초기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지온(Easy On) 판매를 개시하는 등 현지 상황에 알맞은 접근법을 기용했다.

쌀 문화권에 속하는 베트남에서 쿠쿠의 명성은 드높다. 한국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쿠쿠 밥솥을 구매하는 것이 자랑일 정도이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의 사용이 어렵고 오토바이가 많아 매연 문제가 심한 베트남의 환경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 방식으로 판매한 전략 역시 적중했다.

쿠쿠 베트남 법인은 2020 년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 배 상승할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ZDNet(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